



미국 지적재산권 서비스업체 방문기

» 특허정보전략팀 류장환



미국출장 배경

최근 지적재산권이 경제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주요 성과물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기술평가사업의 영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특화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 및 대학 등은 무형의 기술자산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된 컴퓨터 발달과 더불어 대량의 특허데이터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과 특허통계분석 활용분야가 확대 되면서 새로운 특허분석 및 평가지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지재권보호에 앞장서면서 지재권전략 및 지재권관리를 위해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형의 기술자산 평가분야를 주도하는 선진업체를 방문하여 평가제품 및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특허기술평가의 효율적 향상과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출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캘리포니아주

우리는 7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반기는 것은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함께 무더운 날씨였다. 특히, 올해 미국은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무더위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정도였다. 조금만 움직여도 옷에 땀이 베어나고, 외출시 태양광선으로 실명될 수 있으므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라고 현지인이 충고해 주기도 하였다. 다음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바시티의 PatentCafe.com사로 이동하였다. 유바시티

는 인구 약 6만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시와 인접해 있으며, 미국의 주요 연구단지인 Silicon Vally와 San Francisco Bay Area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벤처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의 풍경은 조용한 농촌의 모습이였다. 인상적인 점은 벼농사를 많이 경작하고 있었고,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방문지인 PatentCafe.com사는 1996년에 설립하여 IPR 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이후 특허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IP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주요 고객은 기업, 대학, 정부기관에게 IP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PatentCafe.com사와 구 시청표지

PatentCafe.com사는 구 유바시티 시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점심은 “in the jail”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레스토랑 이름의 근원을 물어보니 레스토랑 위치가 옛날 유바시티 시청의 감옥 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식사는 감옥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차려져 나왔다.



〈그림 2〉 PatentCafe.com사측과 함께

이후 PatentCafe.com사에게 IP 솔루션 및 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를 받았으며, 지적권 평가 서비스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현재 USPTO(미국특허청) 특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PatentCafe.com사의 CEO인 Andy Gibbs의 특허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열정에 대단한 감명을 받았으며, 특허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날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 있는 RAND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산타 모니카의 경우 로스앤젤리스의 코리아타운에서 약 20여분 떨어진 곳이라 재미교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산타 모니카는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우리는 차로 지나가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RAND는 1948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 및 민간부에서 객관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다. 기관의 성격은 우리원이랑 비슷했지만, 규모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1,600여명의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대학, 외국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경제, 보건, 국방, 교육, 항공, 우주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부각되고 있는 사항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인상 깊은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방대한 정보입수 능력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시카고

다음날 우리의 두 번째 방문지는 일리노아주의 시카고 오페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미국출장을 시작한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내 항공을 이용하는 외국인으로서의 불편함은 나만의 생각일까? 불친절한 공항직원과 더딘 일처리 속도에 항의하다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티케팅을 받아야 하는 독일가족과 그들 딸아이의 억울한 눈물이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아직도 테러에 대한 공포는 미국내 여전한 것 같았다.

시카고는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이며 대륙횡단의 철도의 대부분을 비롯하여, 에팔래치아 산맥, 서쪽의 모든 노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23개 철도의 기점이 되어있는 세계 제일의 철도 집중지이며, Amtrak¹⁾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시카고는 계획도

1) 미국내 대부분의 여객과 화물수송을 맡고 있는 National Rail Passenger Corporation(통칭 Amtrak)은 미국 정부 및 수 개의 민간기업의 합작출자에 운영되고 있는 광역 철도 운송 서비스이다. Amtrak은 미국 내 400여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품격있는 교통수단으로 미국여행시 선호도가 높다.



〈그림 3〉 RAND 본사 정문

시답게 반듯반듯한 바둑판모양으로 잘 정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역시 시카고의 자랑거리는 미시건호가 아닐까 싶다. 호수의 폭과 길이가 500km와 120km, 면적이 약 6만km²인 이 거대한 호수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우리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 바로 옆에 있는 미시건호에서 수영, 요트 등 레저를 즐기는 모습에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세 번째 방문업체인 Ocean Tomo사는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테헤란로를 연상하게 하였다. 1층 로비에서 약속을 확인하고 명찰을 받은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Ocean Tomo는 1987년부터 미국 전역에 IP관련 가치평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1988년에 가치평가, Litigation damage, Tax treatment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IP 컨설팅 서비스업체로 출범하게 된다. 2000년대에 와서는 최초로 “지적재산 보험상품” 및 “양도기탁 서비스”를 미국내 실시하였다. 포춘 500대 기업에게 IPR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쪽으로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어 웹사이트



〈그림 4〉 Ocean Tomo사측과 함께

및 영-일 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Ocean Tomo는 지금껏 방문한 곳과 달리 사뭇 대기업을의 이미지를 한층 풍기고 있었으며, 회의 자체도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다. IP 토털 컨설팅 업체답게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면서 IP 토털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다.

마지막 방문지인 애틀랜타

애틀랜타는 인구 약45만 명의 미국 남동부 최대도시이며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다. 특히, 물류업의 요충지로서 부각되면서 미국 내를 비롯한 전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물류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애틀랜타는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었으며, 특히 시청의 지붕이 도금이 아닌 순금으로 제작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순금으로 된 지붕을 가진 애틀랜타 시청에 대해 애틀랜타 시민의 민원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만일 서울시 시청청사 지붕을 금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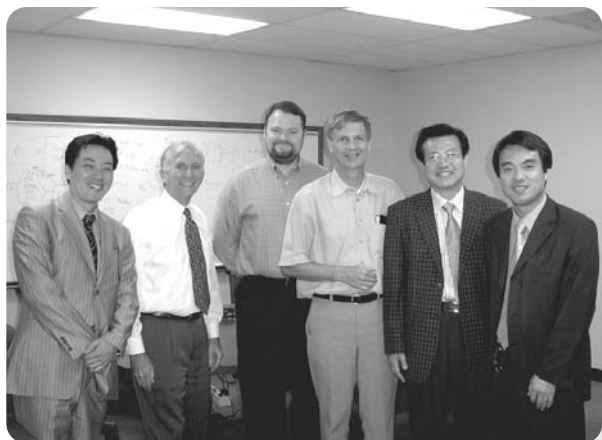
미국에서 테러가 피해간 도시라는 유명세를 타면서 CNN을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의 본사들이 애틀랜타로 옮겨오고 있다고 했다. 애틀랜타 1996년 올림픽을 시작으로 다운타운이 형성되고 그 위로 미드타운, 업타운 형태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개발된 지역이 많다고 하니 땅 넓은 미국이 부러웠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애틀랜타(Atlanta)가 핫플랜타(Hotlant)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여느 도시와 다르게 애틀랜타에는 흑인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도시의 40%이상이 흑인이라고 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지역이 애틀랜타 지역의 조지아 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곳이 흑인들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으며, 마틴 루터 킹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어서 더 그러하기도 모르겠다. 조지아역은 이제 더 이상 역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상과 족쇄 등이 보였는데, 노예를 올려놓고 경매를 했던 장소라고 하였다.

네 번째 방문지인 Search Technology사는 애틀랜타에서 약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조지아 노크로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작은 마을 같은 인상을 주었다.

Search Technology사는 1980년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ITO) 와 U.S. Army Tank-automotive and Armaments Command (TACOM)로부터 후원받은 일련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여 VantagePoint 라는 데스크 탑용 특허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Search Technology사는 미국 남부 굴지의 대학인 조지아공과대학과 연구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다.

서로 짧은 회사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특허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Search Technology사는 PIUG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회사여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림 5〉 Search Technology사측과 함께

후 기

이번 미국출장에서 미국 특허업체의 서비스 제품을 포함하여 미국기업의 경영방법 및 기업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한국특허에 대한 요구가 일본특허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을 컴퓨터를 통해 단순화하여 노동집약적인 아닌 고부가가치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허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허통계를 이용한 평가지표와 기법의 연구를 위한 산·학 연구기반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 및 연구 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이 부러웠다.

특허기술평가 서비스에 있어서는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제품시장 등의 자료를 정비하여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반면, 국내 실정에 비추어 보면 특허제도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한 서구에서 개발된 분석지표들을 차용하는 수준이고 보면, 국내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평가지표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과 지원체계가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상기 미국 특허업체에서는 특허분석의 주류로 자리 잡은 특허인용(Citation)분석과 관련하여 특허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특허공보에 기재된 정보 내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최대한 추출하여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